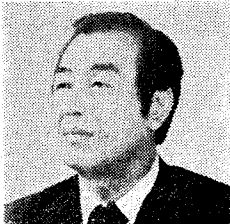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執念의 世界的 發明人

삼원API 金文煥 사장



〈金文煥 사장〉

87년 西獨 뉘른베르크 貿易센터에서 열린 '87西獨國際아이디어發明·新製品展示會에 「自動車自動액셀러레이터裝置」를 출품하여 영예의 金賞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뉴욕國際發明·新製品展示會에서도 金賞을 수상한 삼원API 金文煥 사장은 아직도 즐거운 표정이다.

60년대 운수업과 렌트카 會社를 운영했던 金시장은 車의 구조에 밝아 2년동안 研究한 끝에 自動 액셀러레이터 發明에 成功했다.

이번 수상을契機로 自動 액셀러레이터를 製品化해서 삼원 API를 設立한 金사장은 요즘 國內外 市場

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金사장은 우리나라의 콜택시·중고차·렌트카業界를 새롭게 개척한 교통업계의 개척자이기도 한데 2년 동안 自動액셀레이터를 독자적으로 研究하여 오늘의 榮光을 차지한 것이다.

『액셀레이터는 가속·감속·주행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發明한 것은 주행기능만을 自動化한 것으로 액셀페달은 前後단으로 구분하여 前단은 가속하여 페달을 일정하게 고정하는 역할만 할 수 있으며, 後단은 해제 또는 감속하는 페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金사장의 설명은 막힘이 없다.

실제로 金사장은 자신이 發明한 自動액셀레이터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足動式 自動 주행속도 장치는 이번 金사장이 發明한 것이 世界 최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느냐에

成敗의 關鍵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金사장이 發明한 自動액셀페달의 조작방법은 일반 액셀페달을 조작하는 방법과 同一하게 右足 앞 발바닥으로 밟아서 가속시키고 발 뒤꿈치로 눌러서 해제할 수 있으므로 액셀페달 조작방법과 같다.

속도의 조정은 앞페달을 눌러서 원하는 속도가 되면 앞페달을 놓으면 自動으로 페달이 고정되어 주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시간 동안 시내를 달릴 때 오른발을 누르는 시간이 보통차는 46분이지만 自動액셀레이터를 달면 3분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金사장의 설명이다.

金사장에 따르면 또 오랜 시간 고속도로를 달릴 때 自動액셀레이터를 달면 오토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운전으로 쌓이는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저는 공학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成功할 수 있었다고 金사장은 말한다. <8>